

일본어 표현 문형의 접속에서 나타나는 오용에 대해서

조남성*
chons@hanbat.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는 말 | 4.2 조사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 |
| 2. 선행연구 | 4.3 조사로 시작하는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 |
| 3 조사 방법 | 4.4 표현 문형 접속에서 발생한 조사 오용 |
| 4. 조사 결과 및 분석 | 5. 조사 결과의 해석 |
| 4.1 활용상의 오용 | 6. 맺는말 |

주제어: 일본어 표현 문형(Japanese Expressions),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Korean learners of Japanese), 일본어능력시험(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활용상의 오용(morphological errors), 조사 오용(particle errors)

1.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는 일본어 표현 문형의 접속(接續)에서 나타나는 오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어 표현 문형¹⁾은 일본어능력시험(JLPT :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N1, N2 수준²⁾ N1의 것이다.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는 대부분 일본어 표현 문형 학습에서 실제 사용 즉 표현(쓰기, 말하기)보다는 이해(읽기, 듣기)를 우선하고 있다. 이는 JLPT(또는 JPT : Japanese Proficiency Test 등)를 대비한 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현 문형 사용 특히 쓰기에서는 기초적인 접속 오용을 적지 않게 범하고 있다. 접속 오용이란 「X(명사, 동사, 형용사, 형용동사 등)+표현 문형」에서 표현 문형에 이어지는 X의 접속 부분의 오용, 즉 활용

*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교수

- 1) 国際交流基金・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2002)의 『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에서는 「文法的な<機能語>の類-2級(サンプル), 170개(pp.161-169), 「文法的な<機能語>の類-1級(サンプル), 99개(pp.170-174)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들을 연구 편의상 ‘표현 문형’이라고 한다.
- 2) 国際交流基金과 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에서 운영하는 日本語能力試験 공식 웹사이트에서 보면, 현재의 시험과 (구)시험(2009년까지)의 비교에서, 합격선이 N1은 (구)시험 1級과 거의 같고, N2는 2級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기술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1, 2급을 각각 N1, 2라고 한다. 그리고 3, 4級을 각각 N4, 5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http://www.jlpt.jp/about/comparison.html> : 2017.1)

(형태)상의 오용과 조사 관련 오용이다. 조사 관련 오용은 조사(예 : -こそ, -ものの, -ほど 등)나 조사로 시작되는 표현 문형(예 : -に決まっている, -だけあって, の末 등)의 접속에서 발생하는 것과 여러 표현 문형 접속에서 발생하는 조사의 첨가(添加), 생략(省略), 대치(代置)의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미상의 오용이 활용상의 오용이나 단순한 조사 오용보다 의사전달을 더 방해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활용상의 오용이나 조사 오용은 사소한 오용이지만 언어전달의 상대에게 문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정확성을 요하는 공적인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이미지가 개인 또는 문장 자체에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자체에도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

지금까지 표현 문형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표현 문형을 사용한 단문(短文) 만들기에서 접속 오용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행해지고 있지 않다. 활용상의 오용과 조사 오용 분석은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는데, 표현 문형 접속에서 발생한 이들 오용을 처음으로 보고하는데 의미를 찾고자 한다. 난이도가 있는 표현 문형을 사용하면서 사소한 활용상의 오용과 조사 오용을 범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지도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

2.1 1~2급(N1~N2) 표현 문형에 대한 연구

(구)JLPT의 1~2급(N1~N2) 표현 문형에 대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난이도 및 사용 현황, 그리고 지도법을 조사한 연구는 조(2002, 2004, 2006, 2008, 2012, 2013a, 2013b)의 일련의 논문이 있다. 이들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1) 표현 문형의 난이도

조(2002)의 「일본어 표현 문형의 난이도」에서는 文法的な<機能語>の類2級, 1級の 문형에 대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학습 수준별 직관에 의한 난이도를 살펴보고 있다.

조(2006)의 「번역에 따른 일본어 표현 문형의 난이도」에서는 1, 2급 269개 문형에 대한 학습자의 한국어 번역에 따른 정·오답률을 기준으로 난이도를 구하고 있다.

(2) 표현 문형의 사용 현황

조(2004)의 「일본어 표현 문형의 습득」에서는 대학교 3, 4학년(245명)의 과제 작문에서 文法的な<機能語>の類-2級, 1級 문형(269개)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2급 문형(170개)은 절반 정도, 1급 문형(99개)은 약간만 사용하고 있다.

조(2008)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문법 사항 습득」에서는 文法的な<機能語>の類-2級の 44개 문형에 대하여,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를 대상으로, 빈칸 테스트 통하여 사용률을 조사하고 있다.

조(2012)의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가 작문에서 사용한 표현 문형의 비교」에서는 학습자의 학습 수준별 작문에서 사용한 1, 2급 문형을 조사하고 있다.

(3) 표현 문형의 난이도에 따른 지도법

조(2013a)의 「일본어 표현 문형의 지도법 연구 -다지 선다형 문제를 중심으로-」에서는 2급 표현 문형, 조(2013b)의 「일본어 표현 문형(N1 수준)의 지도법 연구」에서는 1급 표현 문형에 관한 선다형 문제의 정·오답률을 바탕으로 한, 유의 표현 문형의 선정 및 학습자의 학습 수준에 따른 난이도 등을 제시하고 있다.

2.2 3~4급(N4~N5) 표현 문형에 대한 연구

3~4급(N4~N5) 표현 문형에 대한 연구는 1~2급(N1~N2) 표현 문형에 대한 연구(3~4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대표적인 2편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2014)의 「일본어 표현 문형(N4~N5)의 난이도」에서는 (구)JLPT의 4~5급(N4~N5) 수준의 표현 문형 난이도를 이해와 표현의 관점에서 학습자 수준별로 조사하고 있다.

유(2015)의 「초급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나는 문법 항목의 오용에 관하여」에서는 초급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나타나는 문법 오용(3, 4급이 98.4%)이 어떠한 문형과 표현의도[『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2002)]에서 제시한 것)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위의 선행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구)JLPT의 1~2급(N1~N2) 표현 문형에 대한 난이도, 사용 현황, 지도법 등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사용(쓰기)상의 오용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3. 조사 방법

조사의 오용문은 2014년~2016년에 단문 테스트에서 얻은 자료이다. 단문 테스트는 학습한 표현 문형을 제시하고 그 문형을 사용해서 자유롭게 문장(1文)을 만들도록 하였다. 학습자(일본어 전공자 2학년)는 1, 2학기를 통해서 『難易度別 日本語 表現文型』³⁾을 배우며, 한 학기당 학습자 인원수는 약 30명 정도(대부분 1, 2학기 수강)이다. 그리고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현 문형은 상대적 빈도가 높은 오용 57개로, 그 내역은 ‘5. 조사 결과의 해석’의 <표>와 같다. 본고에서는 개개의 오용 발생 빈도보다는 어떠한 표현 문형의 사용에서 오용이 발생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 예문에서 →표는 ‘오용문(誤用文) → 정용문(正用文)’을 나타낸다. 정용문은 오용문이 단문이라 학습자의 의도를 입의로 파악해서 정정한 것도 있다.

4. 조사 결과 및 분석

4.1 활용상의 오용

4.1.1 미연형의 오용

아래의 (1)~(4)는 부정, (5)~(7)은 의지 접속 관련 오용이다.

(1) ~ずにはいられない

~ずには이られない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로 「動詞 未然形 + ずには이られない」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①, ②, ③은 「勉強しずには이られなかつた → 勉強せずには이られなかつた」「思い出しずには이られなかつた → 思い出さずには이られなかつた」「しゃべらずには이られない → しゃべらずには이られなかつた」처럼 連用形이나 기본형에 접속하고 있다. -ず(=ない)는 -する 동사에는 -せず처럼 붙는다.

3) 趙·佐々木(2001)의 『難易度別 日本語 表現文型』은 國際交流基金·日本國際教育協會(1994)의 『日本語 能力試驗出題基準』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현 문형에 대해서, 표현 문형을 난이도에 따라서 제시하고 표현 문형별 다수의 예문을 제시하여 작성한 것이다.

- <예> ① 日曜日に家で勉強し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 (日本語がおもしろいので)日曜日にも家で勉強せ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 ② この料理を食べたら、母が思い出し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 あの料理を食べたら、母のことを思い出さ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 ③ 私はともだちとしゃべらずにはいられない。
 → 私は友達にしゃべらずにはいられなかった。

(2) ~ずにはおかない

~ずにはおかない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로 「動詞 未然形 + ずにはおかない」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だませずにはおかない → だまさずにはいられない」처럼 어미가 -す이므로 -する 동사에 접속하고 있는 형태(する+ず → ぜず)로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예> 犯人は人をだませずにはおかない。 → 犯人は人をだまさずにはいられないようだ。

(3) ~ざるをえない

~ざるをえない는 ‘~하지 않을 수 없다’ 의미로 「動詞 未然形 + ざるをえない」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①, ②는 「べんきょうざるをえない → 勉強せざるをえない」「帰宅ざるをえない → 帰宅せざるをえない」처럼 명사에, <예>③은 「こうかいしざるをえません → 後悔せざるをえません」처럼 -する 동사의 연용형에 붙인 형태이다. ~ざるをえない의 ざる[부정 조동사 ず(=ない)의 連体形]의 품사(의미·용법)를 정확히 몰라서 범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 <예> ① 学生はべんきょうざるをえない。 → 学生は勉強せざるをえない。
 ② 今日はきつと帰宅ざるをえない。 → (帰りたくないか)今日は帰宅せざるをえない。
 ③ じゅんぴの足りなさをこうかいしざるをえません。
 → 準備不足を後悔せざるをえません。

(4) ~んばかりの

~んばかりの는 ‘~할 것 같은’ 의미로 「動詞 未然形 + んばかりの」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いゝんばかりの → 言わんばかりの」처럼 동사 연용형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 ~んばかりの의 ん[부정의 조동사 ん(=ない)의 撥音便]의 품사(의미·용법)를 정확히 몰라서

범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あそびたいといいんばかりの顔だった。→ 遊びたいと言わんばかりの顔だった。

(5) ~う<意志形>にも ~ない

「~う<意志形>にも ~ない」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의미로 「動詞 意志形 + ~う<意志形>にも ~ない」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①, ②, ③의 -う(어미)로 끝나는 동사에서 「かよう → 買おう」⁴⁾「思うよう → 思おう」「買う → 買おう」와 같은 오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어미 -う 동사 + (よ)う(조동사)」의 미습득에 기인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① けいたいをかようにもかえない。→ お金がなくて携帯を買おうにも買えない。

② 思うようにも思えない。→ 思おうにも思えない。

③ お金がいなくて買うにも買えない。→ お金がなくて買おうにも買えない。

(6) ~う<意志形>が ~まいが

「~う<意志形>が ~まいが」는 ‘~하든지 ~말든지’ 의미로 「動詞 意志形 + ~う<意志形>が ~まいが」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표현 문형에 「~う<意志形>」가 제시되어 1단동사를 5단동사처럼 어미 변화(信じろうが→ 信じようが)를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예> あなたが信じろうが信じまいがかまいません。

→ あなたが信じようが信じまいが私がかまいません。

(7) ~んがために

~んがためには ‘~하기 위해서’ 의미로 「動詞 未然形 + んがために」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守るんがために → 守らんがために」처럼 기본형에 접속하고 있다. ~んがために의 ん[의지 조동사 む(=しよう)의撥音便]의 품사(의미·용법)를 정확히 몰라서 ん(の)으로 잘못 생각해서 범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命を守るんがために仕事を辞めた。→ 命を守らんがために仕事を辞めた。

4) 趙·佐々木(2002 : 189)는 「取り立てて言ようとするするのは…(→言おう)」와 같은 오용을 보고하고 있다.

4.1.2 연용형의 오용

아래의 (1)~(2)는 ‘동사+동사’, (3)~(4)는 ‘동사+접미어’, (5)는 예외적인 오용이다.

(1) ~きれない

~きれない는 ‘전부 ~하지 못하다’ 의미로 「動詞 連用形 + きれない」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読むきれない → 読みきれない」처럼 기본형에 잘못 붙이고 있다. 이는 きれない(きる+ない) 접속 용법의 미습득에 기인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時間がないから全部読むきれない。 → 時間がないから全部読みきれない。

(2) ~かぬない

~かぬない는 ‘~할 수도 있다’ 의미로 「動詞 連用形 + かぬない」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いうかぬない → 言いかぬない」처럼 기본형에 접속하고 있다. 이는 かぬない(かぬる+ない) 접속 용법의 미습득에 기인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あの人以上なら、そんなひどいことをいうかぬない。
→ あの人以上なら、そんなひどいことも言いかぬない。

(3) ~ようがない

~ようがない는 ‘~할 수 없다’ 의미로 「動詞 連用形 + よう(接尾語)がない」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言うようがない → 言いようがない」처럼 연체형에 접속하고 있다. 단순히 よう를 명사로 생각해서 사용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言うようがないほどきれいだ。 → 言いようがないほどきれいだ。

(4) ~っこない

~っこない는 ‘~일 리가 없다’ 의미로 「動詞 連用形 + っこない(接尾語)」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合格してっこない → 合格できっこない」처럼 ‘동사+で’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

<예> どんなにがんばっても、〇〇大学には合格してっこない。
→ どんなにがんばっても、〇〇大学に合格できっこない。

(5) ~極まる/~極まりない

~極まる/~極まりない는 ‘너무 ~하다’ 의미로 「形容動詞 語幹 + 極まる(동사)/極まりない(형용사)」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①, ②는 「無禮な極まる → 無禮極まる」「失禮な極まりない → 失禮極まりない」처럼 연체형에 접속하고 있다. ~極まる/~極まりない 용법(접속)의 미습득에서 오는 오용으로 판단된다.

- <예> ① 無禮な極まる。→ 無禮極まる。無禮極まりない。
 ② こんなひどいことをする人とは、失禮な極まりないやつだ。
 → こんなひどいことをするやつは、失禮極まりない。

4.1.3 중지형의 오용

아래의 (1)~(3)은 문어(文語) 조동사 べし 접속 관련 오용이다.

(1) ~べからざる

~べからざる는 ‘~해서는 안 된다’ 의미로 「活用語 終止形 + べからざる」(する→すべからざる)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①은 「言いべからざる → 言うべからざる」처럼 연용형, <예>②는 「ゆるさべからず → 許すべからざる」처럼 미연형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 ~べからざる[추량의 조동사 べ시의 미연형 べから에, 부정의 조동사 ず가 붙은 것]의 의미·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범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 <예> ① 言いべからざることを言い出した。
 → 言うべからざることを言い出した。 / 言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言い出した。
 ② 彼の子供に行為はゆるさべからず。
 → 彼の子供に対する行為は許すべからざるものであった。

(2) ~べく

~べく는 ‘~하기 위해’ 의미로 「活用語 終止形 + べく」(する→すべく)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①은 「合格べく → 合格すべく」처럼 명사, <예>②는 「合格しべく → 合格すべく」처럼 연용형에 붙여 사용하고 있다. べく[추량의 조동사 べ시의 연용형]의 의미·용법을 정확히 몰라서 범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 <예> ① 一度で合格べく必死に勉強した。→ 一度で合格すべく、必死に勉強した。
 ② 一度で合格しべく必死に勉強した。→ 一度で合格すべく、必死に勉強した。

(3) ~べきだ

~べき다는 ‘~해야 한다’ 의미로 「活用語 終止形 + べき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의 -する 동사에는 -す(る)べき다처럼 붙는다.

<예> 学生は勉強しべきだ。→ 学生は勉強す(る)べきだ。

4.1.4 연체형의 오용

아래의 (1)~(3)은 명사, (4)~(5)는 접미어 접속 관련 오용이다.

(1) ~反面

~反面은 명사이지만 부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문형이다. ‘반면’ 의미로 「名詞である/活用語 連体形(な, である) + 反面」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 ‘축구는 못하는 반면(못 하지만) → 축구는 못하고 반면’을 「サッカーは下手で(축구는 못하고) 反面(반면)」처럼 직역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彼はサッカーは下手で反面べんきょうは上手だ。
→ 彼はサッカーは下手な反面、勉強はよくできる。

(2) ~おそれがある

~おそれがある는 ‘~염려가 있다’ 의미로 「動詞 連体形 + おそれがある」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降りおそれがある → 降るおそれがある」처럼 연용형에 접속하고 있다. おそれる에서 파생한 おそれ(명사)를 동사로 생각해서 발생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明日、大雨が降りおそれがある。→ 明日、大雨が降るおそれがある。

(3) ~たびに

~たびに는 형식명사 たびに에 に가 붙은 표현 문형이다. ~たびに는 ‘~할 때 마다’ 의미로 「名詞+の/動詞 連体形 + たびに」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는 한국어 ‘만날 때마다’를

会いたびに로 잘못 대응시키고 있다.

<예> 会いたびにかのじよのことが好きになる。→ 会う度に彼女のことが好きになる。

(4) ~ずくめ

~ずくめ는 ‘~투성이’ 의미로 「名詞 + ずくめ(接尾語)」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白いずくめ→白ずくめ」처럼 연체형에 접속하고 있다. 단순히 ~ずくめ를 명사로 생각해서 사용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あの人は白いずくめの服ばかり来ている。→あの人はいつも白ずくめの服装だ。

(5) ~次第

~次第는 ‘~하는 대로’ 의미로 「名詞動詞 連用形 + 次第(接尾語)」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できる次第 → でき次第」처럼 연체형에 접속하고 있다. 단순히 ~次第를 명사로 생각해서 사용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準備ができる次第、家を出ます。→ 準備ができ次第、家を出ます。

4.2 조사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

4.2.1 격조사 : ~とか

~とか(격조사 と+부조사 か)는 ‘~했던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의 오용(言っとか → 言ったとか)은 「言っておく→言っとく」학습의 부정적 영향으로 판단된다.

<예> 彼がこの言葉を言っとか。→ 彼がこう言ったとか。

4.2.2 접속조사 : ~ものの, ~がてら

(1)~ものの

~もののは 접속조사[もの(형식명사)+の]로 ‘~하지만’ 의미로 「活用語 連体形 + もの(형

식명사)의」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上手ものの → 上手なもの」처럼 어간에 잘못 붙여 쓰고 있다.

<예> 彼は日本語は上手ものの、韓国語は下手だ。
→ 彼は日本語は上手なもの、韓国語は下手だ。

(2) ~がてら

~がて라는 접속조사로 ‘~하는 김에’ 의미로 「名詞動詞 連用形+がてら」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 ‘산책을 하는 김에’를 散歩を가てら로 직역하여 を를 삽입하고 있다.

<예> 散歩を가てら、ゆうびんきよによった。→ 散歩がてら郵便局に行った。

4.2.3 부조사 : ~ほど, ~さえ

(1) ~ほど

~ほど는 부조사로 ‘~만큼, ~정도’ 의미로 「体言/活用語 連体形 + ほど」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①, ②는 ほど를 명사로 잘못 생각하여 「人のほど → 人ほど」「100字前後のほど → 100字ほど」처럼 の를 삽입한 오용이다. 그리고 <예>③, ④처럼 동사의 연용형(泣きほど → 泣くほど), 형용사의 어간(痛ほど → 痛いほど)에 붙인 오용도 발생하고 있다.

<예> ① あの人のほど美人がない。→ あの人のほどの美人は(ほかには)いない。
② 100字前後のほど書いたそうだ。→ 100字ほど(の文章を)書いたそうだ。
③ 合格は泣きほどうれしかった。→ 合格できて泣くほどうれしかった。
④ 目が痛ほど明るい。→ 目が痛いほど明るい。

(2) ~さえ

~さえ는 부조사로 ‘~조차’ 의미로 「体言/活用語 連用形 + さえ」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彼のさえ → 彼でさえ)는 ~さえ의 품사(부조사)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の를 삽입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彼のさえ、このしゃしんを取らなかつた。→ 彼でさえこの写真を撮らなかつた。

4.2.4 종조사 : ~つけ

종조사 ~ける는 ‘~였지’ 의미로 「形容動詞 終止形/助動詞(た, だ) 終止形 + つけ」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예>는 「何日つけ → 何日だつけ」처럼 명사에 직접 붙이고 있다.

<예> 今日は何日つけ。→ 今日は何日だつけ。

4.3 조사로 시작하는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

4.3.1 격조사

(1) ~にしたがって

~にしたがっては 복합사(に+したがう)로 ‘~에 따라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의 오용(うんどうをしにしたがって → 運動するに従って)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격조사가 붙는 품사가 다른 것과 「~(동사 연용형)に行く/来る」문형의 학습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うんどうをしにしたがって力がつよくなった。
→ 運動するに従って、力が強くなってきた。

한국어의 격조사는 일반적으로 체언에 붙어서 사용하나, 일본어의 격조사 に(が, の, より)는 체언 이외의 용언(a)(b)(c)이나 조동사(d)(e) 등에도 붙어서 사용한다.

- ① 映画を見に行く。 ② 行くには時間がかかる。 ③ おいしいに違いない。
④ 食べようにも食べられない。 ⑤ 食べさせに行く。

(2) ~にたえない

~にたえない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의 ~にたえない 오용(聞きにたえない → 聞くにたえない)은 ~にしたがって의 오용과 똑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격조사가 붙는 품사가 다른 것과 「~(동사 연용형)に行く/来る」문형의 학습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まったく聞きにたえない言葉ばかりだ。→ まったく、聞くにたえない言葉ばかりだ。

(3) ~に足る

~に足る는 ‘~하기에 충분하다’ 의미로 「名詞/動詞 連体形 + に足る」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동사 연용형에 붙여서 사용한 오용 원인은 위의 「(1)~にしたがって, (2)~にたえない」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예> 読みに足る本だ。

→ これは睡眠時間を削ってでも読むに足る本だ。 / 読む価値がある本だ。

(4) ~に決まっている

~に決まっている는 ‘반드시 ~된다’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의 오용(帰るのに決まっている → 帰るに決まっている)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격조사가 붙는 품사가 다른 것과 ‘~돌아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직역)의 한국어 영향(‘것→の’)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한국어 격조사는 용언에 직접 붙지 않기 때문에 ‘것’을 삽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 テストが終わったらすぐ家に帰るのに決まっている。

→ テストが終わったら、すぐ家に帰るに決まっている。

(5) ~に際して

~に際して는 ‘~(에) 즈음해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의 오용(卒業際して → 卒業に際して)은 ‘졸업 즈음해서’처럼 조사 ‘에(に)’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卒業際してのことだった。→ 卒業に際してのことだった。

(6) ~にほかならない

~にほかならない는 ‘바로 ~인 것이다’ 의미로 「名詞 + にほかならない」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ほかを 명사로 생각하여 「人のほかならない → その人にほかならない」처럼 대신에 の로 대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その人のほかならない。→ その人にほかならない。

(7) ~の末

~の末는 ‘~한 끝에’ 의미로 「努力の末, 苦勞の末に, よく考えた末, 考えた末に, 考えた末の結果」처럼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의 오용(努力したの末 → 努力の末)은 한국어 ‘노력한 끝에’에서 ‘노력한 → 努力した’로 대응시키고 ~の末를 붙여서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努力したの末大学に合格した。→ 努力の末, 大学に合格した。

4.3.2 접속조사

(1) ~て以来

~て以来(て: 접속조사)는 ‘어느 일정한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의미로 「名詞+以来: 2000年以来, 創立以来, 開設以来 등」 「(動詞)て以来: ~한 (이)후」 형태로 사용한다. <예>①, ②는 같은 오용으로 「出合った以来[만남 (이)후] → 出会ってから」 「であった以来 → 会って以来」처럼, 「-한 (이)후」를 「(動詞)た以来」로 잘못 대응시키고 있다.

<예> ① 彼に出合った以来もう2年がたった。→ 彼と出会ってからもう2年が経った。
② かれとであった以来3年かんあったことがない。
→ 彼と最後に会って以来, 3年が経った。

(2) ~からといって

~からといって(から: 접속조사)는 ‘~라고 해서’ 의미로 「活用語 終止形 + からといって」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①, ②, ③은 같은 종류의 오용으로 「(여자)라고 해도 → (女)からといって → 女だからといって」 「(가게)라고 해서 → 店からと言って → 有名な店だからといって」 「(싫다)고 해서 → (きらい)からといって → 嫌いだからといって」처럼 직역을 해서 조동사 だ(<예>①, ②)와 형용동사 어미 だ(<예>③)를 탈락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예> ① 女からといってもなにもゆるされるわけではない。
→ 女だからといって, 何もかも許されるわけではない。
② 有名な店からと言って, 全部おいしい所だとはかぎらない。
→ 有名な店だからといって, 必ずしもおいしいとは限らない。
③ きらいからといってしないわけではない。

→ 嫌いだからといって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

(3) ~ばそれまでだ

~ばそれまでだ(ば: 접속조사)는 ‘~하면 끝이다’ 의미로 「動詞 連用形 + ばそれまで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あきらめばそれまでだ → あきらめればそれまでだ」처럼 れ가 탈락되었다. 이와 같은 오용은 학습자가 「考える+れば(하1단활용동사 가정형) → 「考えれば(えれ처럼 모음e가 겹침)」 → 「考えば(일반적으로 뒤의 れ를 탈락시킴)」와 같이 종종 범하고 있다.⁵⁾

<예> いくら頑張ってもあきらめばそれまでだ。
→ いくら頑張ってきたとしても(途中で)あきらめればそれまでだ。

(4) ~つつある

~つつある(つつ: 접속조사)는 ‘~하고 있다’ 의미로 「動詞 連用形 + つつある」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 ‘향상하고 있다’을 向上つつある로 대응, 즉 ‘향상(向上) 하고 있다(つつある)’처럼 직역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彼の日本語は向上つつある。 → 彼の日本語能力は向上しつつある。

4.3.3 부조사

(1) ~しかない

~しかない(しか: 부조사)는 ‘~할 수 밖에 없다(유일한 방법)’ 의미로 「体言/動詞 連体形 + しかない」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①(食べしかない → 食べるしかない), ②(行きしかない → 行くしかない)는 ~しか(ない)가 동사의 연체형에 붙으나,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조사 ‘~밖에’가 동사의 기본형에 붙지 않아서 발생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① ラーメンを食べしかない。 → ラーメンを食べるしかない。
② 土曜日、郵便局は午前中に行きしかない。
→ 土曜日は(事情があつて)郵便局に午前中に行くしかない。

5) 趙·佐々木(2002: 204)는 「影響を考えれば…(→考えれば)」 「被害を与えれば…(→与えれば)」 「時間が流れば…(→流れれば)」와 같은 오용을 보고하고 있다.

(2) ~きりだ

~きりだ(きり:부조사)는 ‘뿐이다’ 의미로 「体言/活用語 連体形 + きりだ」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た + きり」형태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예>(会ってきりだ。→ 会ったきりだ。)는 부조사 ~き리의 접속 용법 미습득에 기인하겠지만, 한국어의 용언 기본형에 일반적으로 조사가 붙지 않으므로, 기본형(연체형)인 会う, 会った를 피해서 연용형(あつて)을 사용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一度会ってきりだ。→ 一度会ったきりだ。

(3) ~だけあって

~だけあって(だけ:부조사)는 ‘~인 만큼’ 의미로 「体言/活用語 連体形 + だけあって」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会長のだけあって → 会長(である)だけあって]는 부조사 ~だけの 접속 용법 미습득에 기인하겠지만, 한국어 직역[회장(會長)인(の) 만큼(だけあって)]에 의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会長のだけあって、成績も高い。→ 会長(である)だけあって、成績もいい。

4.4 표현 문형 접속에서 발생한 조사 오용**4.4.1 조사 첨가 오용**

아래의 (1)~(5)는 の, (6)~(8)은 に, (9)는 の/に, (10)은 が를 첨가한 오용이다.

(1) ~なりに

~なりに는 접미어 なりに にか 붙은 표현 문형이다. ~なりに는 ‘~나름대로’ 의미로 「名詞+なりに」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는 なりを 명사로 생각해서 「私のなりに → 私なりに」와 같이 の를 삽입하고 있다.

<예> 私のなりに考えて行くことです。→ 私なりに考えて行くことにしたのです。

(2) ~なくしては

~なくしては는 ‘~없이는’ 의미로 「名詞+なくしては」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パソ

コンのなくしては → パソコンなくしては)는 の를 불필요하게 삽입한 오용이다.

<예> パソコンのなくしては何もできない。 → パソコンなくしては何もできない。

(3) ~ぬきで

~ぬきでは ‘~을 빼고서’ 의미로 「名詞+ぬきで」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동사 연용형(抜く→抜き) 누きを 명사로 생각해서 「冗談のぬきで → 冗談ぬきで」처럼 の를 삽입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冗談のぬきで話してください。 → 冗談ぬきで話してください。

(4) ~次第だ

~次第だ는 접미어 次第에 다가 붙은 표현 문형으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의미로 「名詞+次第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次第를 명사로 생각해서 「あなたの次第だ → あなた次第だ」처럼 の를 삽입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あなたを信じるか信じないかはあなたの次第だ。
→ 信じるか信じないかはあなた次第だ。

(5) ~気味

~気味는 접미어로 ‘그러한 경향이나 모습이 있다’ 의미로 「名詞動詞 連用形+気味」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어에 명사 ‘기미’가 있어서 <예>①(かぜの気味 → 風邪気味)처럼 の를 삽입한 오용을 범하고 있다. 風邪の気味がある. 라는 표현이 있지만 일반적인 아니다). <예>②도 기미(気味)를 명사로 생각하고 ‘やせた(마른)’를 사용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① かぜの気味で、運動をしなかった。 → 風邪気味だったので、運動をしなかった。
② ちょっとやせた気味がある。 → ちょっとやせ気味の(体型)だ。

(6) ~まみれ

~まみれ는 접미어로 ‘~투성이’ 의미로 「名詞+まみれ」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에서 우선 ‘피로’를 血(피)로 번역하고, まみれ를 붙여서 사용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6) Yahoo! JAPAN 검색에 의하면(2017.1.14.), 風邪気味の 건수는 399,000, 風邪の気味는 2,800이다.

<예> 彼は血にまみれだった。→ 彼は血まみれだった。

(7) ~いかなだ

~いかな다는 ‘여하에 따르다’ 의미로 「名詞(の) + いかな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 ‘결정에 따르다’를 「決定に(결정에) いかなだ(따르다)」처럼 に를 삽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わが家は父の決定にいかなだ。→ 我が家は父の決定いかなで全てが決まる。

(8) ~向きだ

~向き다는 명사 向き에 だ가 붙은 표현 문형으로, ‘~에게 적합하다’ 의미로 「名詞+向き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子供)に向く 와 같은 표현의 영향으로 「子供に向きだ → 子供向きだ」처럼 に를 잘못 삽입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この本は子供に向きだ。→ この本は子供向きだ。 / この本はうちの子供向いている。

(9) ~向けだ

~向け다는 접미어 向け에 だ가 붙은 표현 문형으로, ‘~을 대상으로 하다’ 의미로 「名詞+向けだ」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①은 동사 연용형(向ける→向け) 向け를 명사로 생각해서 「子供の向けだ → 子供向け」처럼 の를 삽입한 오용이다. <예>②는 (子供)に向ける 와 같은 표현의 영향으로 「子供に向けだ → 子供向け」처럼 に를 삽입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예> ① この本は子供の向けだ。→ この本は子供向けだ。

② この本は子供に向けだ。→ この本は子供向けだ。

(10) ~あつての

~あつての는 ‘~가 있기 때문에 ~가 있다’ 의미로, 「名詞+あつての」 형태로 많이 사용한 다. <예>①, ②는 같은 종류의 오용으로, 한국어 ‘실패가 있어서/당신이 있어서’를 失敗があつて/あなたがあつて로 직역해서 が를 삽입하고 있다.

<예> ① 失敗があつての成功がある。→ 失敗あつての成功だ。

② あなたがあつての私。→ あなたあつての私だ。

4.4.2 조사 생략 오용

아래의 (1)~(5)는 모두 *の*를 생략한 오용이다.

(1) ~*くせ*に

~*くせ*에는 형식명사 *くせ*에 *に*가 붙은 표현 문형이다. ~*くせ*에는 ‘비난이나 불만을 나타내는 말 : ~인 주제에’ 의미로, 「名詞+の+*くせ*に」 「活用語 連体形+*くせ*に : 何もできない *くせ*に」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①, ②는 같은 종류의 오용으로, 한국어(‘남자/학생 주제에’) 간섭으로 「男/学生(남자/학생) *くせ*に(주제에)」처럼 *の*를 탈락시키고 있다.

- <예> ① 男*くせ*に泣き虫だ。 → 男*の**くせ*に泣き虫だ。
 ② 学生*くせ*に勉強しない。 → 学生*の**くせ*に勉強しない。

(2) ~*おかげ*で

*おかげ*는 형식명사로 주로 ~*おかげ*で로 ‘진전이 원인이 되어서, 후건의 바람직한 상태가 발생한다’ 의미로, 「名詞+の+*おかげ*で」 「(動詞)た+*おかげ*で」 「その+*おかげ*で」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는 한국어(‘남자 덕택에’) 간섭으로 「男(남자) *おかげ*で(덕택에)」처럼 *の*를 탈락시키고 있다.

- <예> その男*おかげ*で私が行く。 → その男*の*人*のおかげ*で私が行けることになった。

(3) ~*ことだから*

~*ことだから*는 ‘~이니까’ 의미로 「名詞+の+*ことだから*」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에서는 ‘명사+의+명사’에서 ‘의(の)’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사람이니까’를 *彼**ことだから*로 직역한 것에 기인한 오용으로 판단된다.

- <예> 彼*ことだから*、怒ったら何をするかわからない。
 → 彼*の**ことだから*、怒ったら手がつけられなくなるに違いない。

(4) ~*ではあるまいし*

~*ではあるまいし*는 ‘~도 아닌데’ 의미로 「動詞+の/ん+*ではあるまいし*」 「名詞+*ではあるまいし*」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行く*ではあるまいし* → 行く*の**ではあるまいし*」 처

럼 の를 탈락시킨 오용이다. ~ではあるまいし에서 ‘~’에 명사를 사용하는 것처럼, 동사도 단순히 기본형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行くではあるまいし… → (一人で) 行くのではあるまいし。/
(初めて) 行くわけではあるまいし。

(5) ~ように

~ようには ようだ의 연용형으로, ‘~처럼, ~같이’ 의미로 「名詞の活用語 連体形+ように」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예>는 한국어 ‘이전처럼’을 직역해 「いぜん(이전) ように(처럼)처럼」 の를 탈락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예> いぜんようにやさしくない。→ 以前のようにはやさしくしてくれない。/
以前に比べてやさしくない。

4.4.3 조사 대치 오용

아래의 (1)은 である 대신 の, (2)는 の 대신에 を를 사용하고 있다.

(1) ~以上

~以上은 ‘(a)수량·정도를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서 그것보다 많은 것’(「名詞 + 以上」: 予想以上, これ以上, 20歳以上 등)을 나타내지만, 여기서는 접속조사와 같이 ‘(b)~한 이상은’(「名詞 + である + 以上」: 学生である以上は 등)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예>(学生の以上 → 学生である以上)의 오용은 「名詞+の+名詞(以上)」처럼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 ① 学生の以上, 勉強しなければいけない。
→ 学生である以上, 勉強しなければいけない。

(2) ~かわりに

~かわ리에는 형식명사 かわ리에 にか 붙은 표현 문형이다. ~かわ리에는 ‘~대리해, ~대신해’ 의미로, 「名詞+の+かわりに」(「動詞 基本形」+かわりに) 형태로 많이 사용한다. <예> ①은 ‘밥 대신에 빵을 먹습니다’이기 때문에 「ごはんをかわりに → ご飯の代わりに」으로 표현해야 한다. 「~が ~を代わりに(動詞) : 親が宿題を代わりにやっであげる」 「누가 밥을 (나

를) 대신해서 '짓다/먹다' 등과 같은 표현과 혼동해서 잘못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②는 한국어(「어머니/친구 대신에」) 간섭으로 「はは/友達(어머니/친구) かわりに(대신에)」처럼 의를 탈락시키고 있다.

- <예> ① ごはんをかわりにパンを食べます。→ ご飯の代わりにパンを食べます。
- ② ははかわりに私が行きます。→ 母の代わりに私が行きます。
- 友達かわりにかえる。→ 友達の代わりに行く。

5. 조사 결과의 해석

위에서 분석한 표현 문형 사용에서 나타난 활용상의 오용과 조사 오용은 57개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접속 오용이 발생한 표현 문형’)과 같다. <표>에서 보면 난이도가 있는(N1, N2) 표현 문형을 사용하는데, 사소한 활용상의 오용과 조사 오용이 발생하고 있다. 4분류 모두에서 N1, N2 상관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분류에서 오용 발생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활용상의 오용에서는 미연형과 중지형은 N1, 연용형과 연체형은 N2가 많은데, 미연형은 부정의 む, ず(文語)가 많고, 중지형은 모두 べし(文語)의 활용형이다.

조사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에서는 다양한 조사(격조사, 부조사, 종조사)가 다양한 활용형(연용형, 중지형, 연체형)에 붙여 사용하는 데 오용이 발생하고 있다.

조사로 시작하는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은 격조사, 접속조사, 부조사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격조사 に로 시작하는 표현 문형의 오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동사 연용형에 접속, の 첨가, に 생략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4.3.1’ 참조).

표현 문형 접속에서 발생한 조사 오용을 첨가, 생략, 대치로 분류했는데, 첨가는 の, に와 관련이 있고, 생략과 대치는 の와 관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첨가의 절반은 접미어와의 접속에서 발생하고 있다(‘4.4.1’ 참조).

7) 国際交流基金・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2002 : 165-167, 172-173)의 『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에서 보면 격조사 に로 시작되는 표현 문형은, ～にあたって/～にあたり…～にわたって/～にわたり/～にわたる/～にわたった(N2 : 33개), ～にあたらない/～にはあたらない…～にもまして(N1 : 11개)의 44개이다.

<표> 접속 오용이 발생한 표현 문형

1 활용상의 오용(20개)
(1) 미연형(7개) : ~ずにはいられない ₂ , ~ずにはおかない ₁ , ~ざるをえない ₂ , ~んばかりの ₁ , ~う<意志形>にも ~ない ₁ , ~う<意志形>が ~まいが ₁ , ~んがために ₁
(2) 연용형(5개) : ~きれない ₂ , ~か ₂ ない ₂ , ~ようがない ₂ , ~つこない ₂ , ~極まる/~極まりない ₁
(3) 종지형(3개) : ~べからざる ₁ , ~べく ₁ , ~べきだ ₂
(4) 연체형(5개) : ~反面 ₂ , ~おそれがある ₂ , ~たびに ₂ , ~ずくめ ₁ , ~次第 ₂
2 조사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6개)
(1) 격조사(1개) : ~と ₂
(2) 접속조사(2개) : ~ものの ₂ , ~がてら ₁
(3) 부조사(2개) : ~ほど, ~さえ
(4) 종조사(1개) : ~つけ ₂
3 조사로 시작하는 표현 문형의 접속 오용(14개)
(1) 격조사(7개) : ~にしたがって ₂ , ~にたえない ₁ , ~に足る ₁ , ~に決まっている ₂ , ~に際して ₂ , ~にほかならない ₂ , ~の末 ₂
(2) 접속조사(4개) : ~て以来 ₂ , ~からといって ₂ , ~ばそれまで ₁ , ~つつある ₂
(3) 부조사(3개) : ~しかない ₂ , ~きりだ ₂ , ~だけあって ₂
4 표현 문형 접속에서 발생한 조사 오용(17개)
4.1 조사 첨가(10개) : *~なりに ₁ , ~なくしては ₁ , ~ぬきで ₂ , *~次第だ ₂ , *~気味 ₂ , *~まみれ ₁ , ~いかんだ ₁ , ~向きだ ₂ , *~向けだ ₂ , ~あつての ₁ (* : 접미어)
4.2 조사 생략(5개) : ~くせに ₂ , ~おかげで ₂ , ~ことだから ₂ , ~ではあるまいし ₁ , ~ように ₂
4.3 조사 대치(2개) : ~以上 ₂ , ~かわりに ₂

* 표현 문형의 우측 하단에 쓰여 있는 ‘1, 2’의 작은 숫자는 각각 1급, 2급을 나타낸다.

6. 맺는말

본고에서는 일본어 표현 문형의 사용(쓰기)에서 발생하는 표현 문형 접속(接續) 관련 오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JLPT N1, N2 (1, 2급) 270개의 표현 문형 사용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범한 57개의 활용상의 오용과 조사 오용을 보고하고 있다. JLPT N1, N2 수준의 표현 문형 사용에서 이들 오용을 범하면, 사소한 오용이지만 문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수·학습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범한 오용(57개)의 특징을 보면, ① 문어(文語) ず, べし 표현 문형에 붙을 때에는 활용상의 오용이 많고, ② 한국어(‘에’)와 다른 격조사(‘に’)의 접속에서는 동사

연용형에 접속, の 첨가, に 생략 등이 나타나고, ③ 표현 문형 접속에서 나타나는 조사 오용에서는 の·に의 첨가, の와 관련된 생략·대치의 오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금후의 과제로 표현 문형의 의미·용법에 관한 오용을 보고하고 싶다. 일본어교육 현장에서는 JLPT를 대비해서 대부분 표현 문형의 이해(읽기, 듣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 문형의 표현(쓰기, 말하기) 교육도 하지 않으면 의미상 올바른 언어 전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의 효율적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용 분석이 필수 불가결하다.

【참고문헌】

유수연(2015)「초급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 작문에서 나타나는 문법 항목의 오용에 관하여」『日本語教育』72,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3-26

조남성(2015)「한국인 일본어학습자의 JLPT 수준별, 활용상의 오용 정정의 분석과 활용」『日本語學研究』45, 한국일본어학회, pp.85-101

_____ (2014)「일본어 표현 문형(N4~N5)의 난이도」『일본근대학연구』43, 한국일본근대학회, pp.73-98

_____ (2013b)「일본어 표현 문형(N1 수준)의 지도법 연구」『일본어학연구』36집, 한국일본어학회, pp.185-205

_____ (2013a)「일본어 표현 문형의 지도법 연구 -다지 선다형 문제를 중심으로-」『일본학연구』제38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279-300

_____ (2012)「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와 일본어 모어화자가 작문에서 사용한 표현 문형의 비교」『일본어교육』제61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7-36

_____ (2008)「한국인 일본어 학습자의 문법 사항 습득」『동북아 문화연구』제15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pp.231-259

_____ (2006)「번역에 따른 일본어 표현 문형의 난이도」『日本語學研究』제16집, 한국일본어학회, pp.157-173

_____ (2004)「일본어 표현 문형의 습득」『日本語教育研究』제6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89-105

_____ (2002)「일본어 표현 문형의 난이도」『日語日文學研究』제43집, 한국일본어학회, pp.253-273

_____·佐々木瑞貴(2002)「일본어 상급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형태상의 오용」『일본어교육연구』3,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185-208

国際交流基金·日本国際教育支援協会(2002)『日本語能力試験出題基準【改訂版】』凡人社

논문투고일 : 2017년 09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7년 10월 17일
 1차 수정일 : 2017년 11월 03일
 2차 수정일 : 2017년 11월 0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1월 17일

<要旨>

일본어 표현 문형의 접속에서 나타나는 오용에 대해서

조남성

본고에서는 일본어 표현 문형의 사용(쓰기)에서 발생하는 표현 문형 접속(接續) 관련 오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즉 JLPT N1, N2 (1, 2급) 270개의 표현 문형 사용에서 한국인 일본어 학습자가 범한 57개의 활용상의 오용과 조사 오용을 보고하고 있다. JLPT N1, N2 수준의 표현 문형 사용에서 이들 오용을 범하면, 사소한 오용이지만 문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수·학습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가 범한 오용(57개)의 특징을 보면, ① 문어(文語) ず, べし 표현 문형에 붙을 때에는 활용상의 오용이 많고, ② 한국어(‘에’)와 다른 격조사(‘に’)의 접속에서는 동사 연용형에 접속, の 첨가, に 생략 등이 나타나고, ③ 표현 문형 접속에서 나타나는 조사 오용에서는 の·到的 첨가, の와 관련된 생략·대치의 오용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금후의 과제로 표현 문형의 의미·용법에 관한 오용을 보고하고 싶다. 일본어교육 현장에서는 JLPT를 대비해서 대부분 표현 문형의 이해(읽기, 듣기)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다. 그러나 표현 문형의 표현(쓰기, 말하기) 교육도 하지 않으면 의미상 올바른 언어 전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의 효율적 교수·학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용 분석이 필수 불가결하다.

A Study on the Occurrence of Errors in Connecting Japanese Expressions

Cho, Nam-Sung

The research study investigated about the errors when connecting the Japanese Expressions. There are the report about 57 morphological errors and particle errors that Koreans learning the Japanese language would make in the process of using 270 expressions of N1, and N2 (1st and 2nd grades) of JLPT (Japanese Language Proficiency Test). Although the errors in using expressions at the level of N1, and N2 of JLPT are local errors, it is considered to need attention in pedagogical learning for such errors have negative influences on total sentences.

Seeing characteristics of 57 errors made by Japanese language learners, it is often found that ①there are a lot of morphological errors in using classical language expressions, for example, ず, べし, ② there appear the connection of adverbial expressions, the addition of の and the omission of に in the process of using conjunction of case particle (‘に’) of the Japanese language with the different grammatical structure from that of the Korean language. ③ regarding particle errors when connecting the Japanese Expressions, it is found that there is much error on the addition of の·到的 and omittance/substitution of の (meaning preposition ‘of’).

As the following task, the study is going to report about errors on the meaning and functions of Japanese expressions. The Japanese educational field teaches students, with the main focus on understanding (reading and listening) Japanese expressions in preparation for JLPT. If the education on using expressions (writing, speaking) is, however, not provided, it is anticipated that conveying right language would involve difficulty. Accordingly, it is prerequisite to analyze errors, above all, for a more effective pedagogical learning.